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 후 OC교협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목회자들이 연합해 헌금 특송을 불러 은혜를 더했다.

## “부활 신앙을 회복하라”

### 사우스베이 지역은 토렌스제일장로교회에서

사우스베이 지역은 사우스베이목사(안병권 회장) 주관으로 오전 6시 토렌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에서 예배드렸다.

이상훈 목사(주비전교회)가 예배를 인도한 가운데 김현수 목사(토렌스선한목자교회)가 기도하고 신태섭 목사(가디나장로교회)가 성경고린도전서 15장 12-19절을 봉독했다. 이어 사우스베이 지역 교인들로 구성된 연합찬양대가 특별찬양을 불렀다. 안병권 목사(가나교회, 사우스베이목사회)는 “복음의 부활 소식”이란 설교에서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면서 “부활 신앙을 회복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부활의 소식

이 곧 복음인데 이 복음을 회복하면 화목케 하는 신앙, 섬기는 신앙이 된다. 사우스베이 지역 모든 교회가 이런 신앙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김관중 목사(새창조교회), 김우준 목사(토렌스조은교회), 윤석형 목사(산샘교회)가 각각 <사우스베이 지역 복음화와 교회의 빛된 사명 감당함을 위해>, <미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한국의 정치 안정과 남북한 화해와 통일을 위해>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사우스베이 목회자들이 연합해 봉헌송을 불렀으며 박종희 목사(코이노니아선교회 대표)가 봉헌기도 하고 최희량 목사(새창조교회 원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 오렌지카운티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드려

4월 1일 부활주일 남가주 9개 지역에서 부활절 새벽연합예배가 거행됐다. 각 지역의 교회협의회 혹은 목사회가 주관한 예배에서 성도들은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부활을 바라보고 살 것을 다짐했다.

OC 지역은 OC교협(이서 회장) 주관으로 오전 5시 30분 미주비전교회(이서 목사)에서 예배드렸다.

박재만 목사(남가주순복음교회)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민승기 목사(새생명교회)가 기도하고 윤우경 집사(미디어위원장)가 성경 누가복

음 9장 21-22절을 봉독했다. 은혜한인교회 중창단이 특송한 후 권혁빈 목사(얼바인 온누리교회)가 설교했다. 권 목사는 “돌이킬 수 있다”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만이 생명이요 소망이다. 부활의 예수로 인해 이 땅의 교회들은 언제든 지 돌이키고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현영 목사(큰빛교회)의 사회로 기도회가 있었다. 김기동 목사(충만교회)가 미국과 한국의 영적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창훈 장로(OC장로회 회장)가 교회 갱신과 부흥, 세계선교를 위해, 이관우 장로(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회장)가 OC 지역 교회의 연합과 복음화를 위해, 사이몬 서 목사(큰빛교회 EM)가 다음 세대의 비전과 헌신, 부흥을 위해 기도를 인도했다.

김영수 장로(은혜한인교회)의 헌금기도, 문성일 목사(미주비전교회)의 특별찬양, 김찬희 목사(OC교협 서기)의 광고, 이서 회장의 인사말 후 윤성원 목사(OC교협 이사)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가 끝났다.

## 남가주 각 지역 부활절 예배

LA 지역은 남가주교협(김재울 회장) 주관으로 오전 6시 나성소망교회(김재울 목사)에서 예배드렸고 강부웅 목사(남가주교협 고문단장)가 설교했다. 남가주교협은 예배 후에 참석자들이 간단한 아침 식사도 함께 나누고 저소득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도 전달했다.

중부 지역은 중부교협(차권희 회장) 주관으로 오전 5시 30분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에서 예배드렸

고 김중현 목사(증경회장)가 설교했다.

동부 지역은 LA동부교협(이승준 회장) 주관으로 오전 5시 30분 하나로커뮤니티교회(이승준 목사)에서 예배드렸고 김지성 목사(글로벌선교교회)가 설교했다.

인랜드 지역은 인랜드교협(강문수 회장) 주관으로 오전 5시 30분 남가주웨슬리교회(박혜성 목사)에서 예배드렸고 구진모 목사(연약교회)

가 설교했다.

샌퍼난도밸리 지역은 샌퍼난도밸리교협(서오석 회장) 주관으로 오전 5시 30분 벨리하나로교회(최효기 목사)에서 예배드렸고 서오석 회장이 설교했다. 벨리교협은 예배 헌금을 차세대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빅토빌 지역은 빅토빌목사회(김승국 회장) 주관으로 오전 5시 30분 한인성안교회(고광덕 목사)에서 예배드렸고 강성수 목사(빅토밸리복음교회)가 설교했다.



벤츄라 지역은 벤츄라교협(이정구 회장) 주관으로 오전 6시 씨미밸리한인교회(반채근 목사)에서 예배드렸고 권혁래 목사(카마리요열방교회)가 설교했다.

**QCA가 미용 선고를 후원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당당히 봉사하세요!  
 기독일보후원 소수에게만 드리는 특별혜택

- 미용 헤어 토탈 자격증 1600시간 \$2,900 (\$16,360)
- 미용 스킨 자격증 600시간 \$1,900 (\$7,900)
- 미용 네일 자격증 400시간 \$900 (\$2,900)

\*전 한국 국가대표가 직접 가르치는 고급 기술반 \$1,000/8회

**QCA Beauty College** 준 박 T.(213)232-3837  
 3660 Wilshire Blvd, #338 Los Angeles, CA 90010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10K Service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5-3180**

## 제1차 시니어 건강세미나

**주제**  
**암 예방.진단에 관한 건강세미나**

120세 건강시대에 꼭 필요한 건강정보를 드리는 세미나에 시니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18년 4월 14일 오전 7시  
 ■ 장소 : 새일교회 (8가와 웨스트모어랜드)  
 ■ 주소 : 760 S Westmoreland Ave, LA, CA 90005  
 ■ 문의 : T.(213)434-1170

강사 : 의학박사 **잔 허**(내과전문의 M.D)

주최 : 기독일보, 실버티비USA | 후원 : 웨스턴병원, 지업(Z-UP)전동 거꾸리, 후지미(FUJIMI) 마사지 체어, LOLC 미끄럼방지 매트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 한국 교회의 조직 (V)

구세군(The Salvation Army)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구세군은 영국의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와 그의 부인 캐더린(Catherine)이 창시한 종교단체다. 19세기 영국 산업혁명 결과로 나타난 빈민들을 위해 전도, 자선 및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부스는 1865년 런던에 본부를 두고 천막을 치고 전도에 전념하였다. 본래 이 단체의 이름은 '동 런던 부흥전도단,' 또는 '기독교 전도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 전도단은 후에 부스가 '기독교인의 사명은 구세군이 되는 것이다.'라고 한 말에 따라 1878년부터 '구세군'이라 불렸다. 부스는 구세군을 창설한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자기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살기를 그만 두고 세상의 불행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몸을 바쳤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죄와 슬픔이 없는 곳은 없다. 그런 슬픈 자의 눈물을 씻고 죄에 빠진 자들을 구원함은 나의 평생 소원이다. 나는 선량한 정부의 친구다. 모든 인민은 나의 벗이다. 나는 모든 인류가 이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내세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쓸 것이다."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에게 깨끗한 정신으로 봉사했다. 또한 사회사업으로 애오개에 있던 소녀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일제 침략으로 함께 밀려들어 온 여러 사회악에 대항하여 투쟁하였다. 구세군은 호남 지역 선교를 위해 전주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로드(Ensign Lord)와 그의 부인을 보내 선교토록 하였다.

다음으로 침례교회의 조직을 살펴본다. 1900년 엘라 딩 선교회로부터 선교활동 일체를 인수한 펜윅(M. C. Fenwick)은 홀로 선교활동을 이끌어 갔다. 그는 함남 원산을 중심으로 선교하면서 1901년 엘라 딩 선교회의 사역을 한국순회선교단과 병합하여 한국에서의 침례회 선교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펜윅은 전직 훈장 신명균을 충청도에, 장기영(張基永)을 전라도에 파송하여 순회 전도하게 하였다. 신명균은 공주에 성서학원을 설립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지도자를 양성하였다. 특이한 것은 이 학교에서는 성경뿐만이 아니고 기술교육을 위해 측량부(測量部)를 두어 교육하였다는 점이다.

적극적인 전도와 선교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이 늘어나자 교회 조직의 필요를 느낀 펜윅은 1906년 10월 충청도 강경의 강경교회에서 전사역자를 소집하여 대회를 열었다. 그는 교회의 성격을 '인류의 선결은 화목이요, 그리스도인의 선결도 화회(大和會)라 하고 교단 명칭은 '대한기독교회'로 정했다. 초대 감목(총회장)에는 펜윅이 선출되었고, 교회 본부는 원산에 두기로 했다. 이 때 이 교회는 그 전도구역을 한국을 위시하여 해외 남·북만주, 러시아, 시베리아까지로 결정하였다.

이 교회는 그 교단의 명칭을 여

러 차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래의 명칭이었던 '대한기독교회'는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후에 '대한'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억압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1921년 16회 대회에서 교단 이름을 '동아기독교회'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 이름을 사용한 지 10년 후에 펜윅이 '교회'라는 이름을 싫어하여 1933년에 이르러서는 '동아기독대'(東亞基督隊)로 바꾸었다. 펜윅은 교회라는 이름은 기독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천도교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서 '성별(聖別)'의 의미가 사라졌으므로 '하나님의 성별된 무리'라는 의미로 '대(隊)'라는 명칭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채택한 것이다.

다음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대해 알아본다. 안식일교회는 19세기 중엽 미국의 농부 출신 침례교 밀러(William Miller)에 연원한다. 그는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계시록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여 자기 나름대로 예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하였다. 그는 1843년 초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언하면서 모두 주님 뜻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다녔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유혹을 받아 생활을 정리하고 흰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 재림 주를 맞으러 갔으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밀러는 자기가 계산을 잘못했다며, 1년 뒤인 1844년에 오신다고 예언하였다. 역시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대부분 흩어졌다. 그러나 일단의 무리가 모여 만든 교회가 곧 '예수재림제7일안식일교회'(The Seventh Day Adventists Church)다. 이들은 안식일에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시켰다.

한국의 안식일 교회는 1904년 하와이로 이민을 떠난 손흥조(孫興祚)와 하와이 개발공사 직원이었던 임기반(林基盤)에 의해 도입되었다. 손흥조는 하와이로 가던 중 일본에 잠시 머무는 동안 신호(神戶)에서 제7일안식일재림교회의 국유수(國谷秀) 목사에게서 침례를 받음으로 한국인 첫 안식교도가 되었다. 손흥조와 임기반은 서류 불비(不備)로 하와이 행이 불발되자 한국에 돌아와 평



이번 후원의 밤을 준비 중인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임원들

## 차세대 음악인 위한 후원의 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가 장학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을 오는 4월 22일(주일) 오후 5시 주님의빛교회(담임 주혁로 목사,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에서 개최한다. 이번 후원의 밤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란 주제 아래, 음악적 달란트와 비전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세대들을 후원하기 위해 열린다. 또 교회음악협회가 오는 9월 개최할 '학생 찬양 경연대회' 시 수여하는 장학금에도 이번 후원의 밤 수익금이 사용된다.

이번에 특별히 후원하게 될 웨인양 학생은 태어날 때부터 왼손이 없었고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은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으며 열정과 재능을 발견해 여러 콩쿨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후원의 밤을 위해 LA영플레이어스, 카이로스 싱어스, 랜디 김 밴드, 그랜드 페스티벌 콰이어, 첼리스트 라일라 양 등이 찬조 출연한다. 문의) 310-381-9835

## 방송인 신은경 권사 초청 간증집회

한인크리스천여성방송인연합이 전 KBS 앵커인 신은경 권사를 초청해 간증집회를 연다.

신 권사는 KBS의 간판이라 할 수 있는 9시 뉴스 앵커로 활동하다 동료 박성범 씨와 결혼하고 방송계를 떠났다. 신 권사는 영국으로 유학, 웨일스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귀국해 한세대 등에서 가르치다 남편과 함께 정계에 입문했다. 새누리당 상임위원, 자유한국당 전임위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초빙교수로 있으며 CTS-TV에서 미라를 7000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간증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은혜를 나눌 예정이고 수익금은

소외 청소년 돕기에 사용된다.

신 권사는 4월 12일 오전 10시 미성대학교 신학생 대상 세미나를 시작으로, 18일 저녁 7시 중현선교교회, 21일 새벽 5시 30분 나성영락교회, 22일(시간 미정)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 연합집회, 23일 오전 10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회자 세미나, 25일 저녁 7시 다우니제일교회, 27일 저녁 7시 글로벌선교교회, 29일 오후 1시 오렌지힐교회, 5월 2일 저녁 7시 나성순복음교회, 4일 저녁 7시 주님의영광교회, 5일 저녁 7시 OC교협 주최 연합집회 등에서 간증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인크리스천여성방송인연합 주관 간담회 및 여러 방송에 출연한다. 문의) 213-500-5449

안도 용강(龍岡)에서 전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교리를 깊이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일본의 국유수 목사와 미국인 선교사 필드(F. W. Field)가 1904년 내한하여 전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안식일을 성수를 강조하였다. 즉 일요일은 로마 황제 콘스탄틴(Constantine

the Great)이 331년 공휴일로 선포하여 지켜진 것이라 주장했다. 성경보다 교리를 강조한 이 교회는 성경에 기초한 여타 교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하였다. 안식일 성수 주장으로 인해 대부분 정통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 같이 1900년대 초에 여러 교파가 자리 잡으면서 한국에서 위치를 확보하고 그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Since 1999 www.e-nca.org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여름학교 모집 6/4 - 7/27**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1,390점 기록 (전미주 평균 1,060점)
- 지난 19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 (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운영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 신앙의 자유 찾아 월남했던 목사와 자유민주주의의 70년대 '주한미군 철수' 반대 외쳤던 박조준 목사

“어느 정치적 입장이나 정당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굳건히 서 나가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84세의 노(老) 목회자. 두 눈의 초점은 또렷했고, 비록 쇠약했으나 목소리엔 힘이 있었다. 무언가를 머리 로만이 아닌 가슴과 삶으로 경험했을 때 뿜어져 나오는 그런 힘이 그 에겐 있었다. 박조준 목사다.

박 목사는 북한에서 태어났다. 그러다 6.25 한국전쟁 당시 월남했다. 그가 북한을 떠났던 건, 오직 신앙의 자유 때문이었다. “그것 말고 남한에 올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랬다. 그의 말처럼 그 때의 남한은 북한보다 나은 게 없었다. 단 하나,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그 아래서 허용된 신앙의 자유만이 북한보다 빛났다.

박 목사는 그와 같은 북한 출신으로 영락교회를 개척해 대형교회로 일군 후 한경직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 ‘반공’이라는 점에서 그와 한경직 목사는 통하는 데가 있었다. 박 목사는 한경직 목사의 뒤를 이어 영락교회의 담임목사가 됐다.

그가 영락교회 담임목사로 있던 1977년 초, 박 목사의 마음을 뒤흔드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돌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나온 것. 공산주의를 피해 가까스로 월남한 박 목사, 그리고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이들에게 이는 그야말로 천천백력이었다.

박 목사는 그와 뜻을 같이하는 1천여 명의 목사들, 그리고 성도와 함께 거리로 뛰쳐나갔다. 미국대사관저 앞에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 성명을 낭독했다. 난생 처음 해 본 시위였다. 이 때가 어떤 시대였나? 유신체제의 서늘이 퍼들던, 엄혹한 세상이었다. 하지만 이 때 만큼은 정부도 교회에 어느 정도 기대는 눈치였다고 한다. 마침내 박 목사는 카터 대통령의 특사를 만날 수 있었다.

“목회만 하셨던 분이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박 목사를 만난 특사의 첫 마디였다. 박 목사가 대답했다. “공산주의를 피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미군이 철수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기회를 엿보던 북한이 우릴 공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피해를 다 어찌 합니까?”

그러자 특사가 다시 맞받았다. “걱정마세요. 목사님. 주한미군을 철수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군의 군사력이 북한 인민군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지만 박 목사의 생각은 달랐다. “체체가 특사님보다 작지만, 제가 선공을 하면 우선 특사님이 맞겠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 뒤 북한이 남침하면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강할지라도 지금은 미군이 있어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겁니다.”

박 목사에 따르면 당시 카터 대통령은 인권을 중시했다. 주한미군 철수도 인권을 억압했던 박정희 정권에 대한 일종의 압박 수단이었



박조준 목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 그러나 박 목사는 “쥐를 잡겠다고 독을 깨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미국 측 특사에게 카터 대통령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했다. 돌아보면 참 무모했던 행동이었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다.

박 목사는 비록 카터 대통령은 만나지 못했지만, 미국으로 건너가 주한미군 철수를 옹호했던 PCUSA(미국장로교)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주한미군 철수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결국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았다.

현재 한반도는 남북·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평화 분위기로 고조돼 있다. 박 목사 역시 대화에 가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양보해 가면서까지 북한에 다가가는 것 만큼은 우려했다.

“나는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살아봤습니다. 한 마디로 공산주의 맛을 본 사람이지요. 이런 말을 하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그런 체제를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뭐가

그렇게 나쁘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한 번 보세요. 거기에 정말 계급이 없습니까?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나요? 아니지요. 시장경제를 우선하는 자유민주주의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나마 역사적으로 증명된, 최선은 아닐지라도 끊임없이 보완해 가며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체제입니다. 특히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지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영 기자

## 서울신대 후원을 위한 골프 토너먼트

오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LA에 있는 시온성결교회(최경환 목사)에서 열리는 미주성결교단 총회를 앞두고 서울신학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회장 송증복 목사)가 서울신대 후원을 위한 골프 토너먼트를 준비 중이다.

서울신대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교단 신학교이며 이 학교 출신들

이 미주에 와서 미주성결교단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

남가주총동문회는 이번 총회 기간에 맞추어 골프 토너먼트를 열어 107년된 모교를 후원하고자 한다. 송증복 동문회장은 최근 노세영 총장 등 학교 주요 관계자와 골프 토너먼트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동문은 총

무 김희창 목사(213-268-9367)에게 연락하면 된다. 대회는 4월 18일 (목) 오전 8시 30분 한센맨 골프코스(10400 Glenoaks Blvd. Pacoima, CA91331)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100달러다.

한편, 남가주총동문회는 오는 6월 3일 오후 5시에 정기모임 및 동문회 총회를 연다.



이번 골프 토너먼트를 준비하는 총동문회 임원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결을 한 달에 남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철저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할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꾸러기 탐구생활 이상호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롤업배너, 현수막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59〉

## 티벳 민족을 품은 한인 선교사

필자는 지난 주에 티벳에서 8년간 장기 선교를 하시다가 미주의 선교 집회를 위해 방문하신 K 선교사를 만났다. 40대의 여성 독신 선교사이다. 선교 직전까지 한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오래하다가 비전스쿨을 통해 선교소명을 받고 티벳으로 향했다 한다.

해발 3천 미터가 넘는 고산으로 이루어진 곳에서의 사역이라 타 지역에 비해 더욱 환경적인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라마 불교의 나라. 본국인들이 그 명칭을 좋아하지 않는단다. 지금은 티벳 불교라 칭하는, 중국의 불교와 그들의 전통적 샤머니즘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종교이다. 지금도 그들은 '오체투지수행'으로 구원의 길을 붙잡으려는 믿음이 있다. 두 팔꿈치, 두 무릎, 그리고 이마의 다섯 지체를 땅에 던져 몸을 깔았다가 다시 일어서고 몇 발짝 가다가 다시 몸을 던져 오체투지를 하는 고행을 어떤 이들은 2천 킬로미터 이상 하는 자들도 있다 한다.

이번에 선교사에게 들은 이야기는 필자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한인 선교사 10여 가정(독신 사역자 포함)이 팀을 나누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 끝에 교회가 세워진 곳도 여러 곳이 되며, 이제 하나님의 세계선교의 비전을 받고 젊은 티벳 청년들이 열방을 향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티벳 청년들이 일어서고 있다는 말에 필자는 나도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며 "할렐루야"를 외쳤다. "아! 주님이 하시는군요."

티벳을 향한 가장 큰 후원은 역시 중보기도라 했다. 한국에서는 수백 명의 중보기도자들이 티벳 선교를 향한 뜨거운 기도의 불을 지피고 있으나 아직 미주에서는 티벳 선교에 대한 마음이 모여지지 못한 것 같은 분위기에 안타까워 하며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K 선교사의 얼굴 빛과 맑은 눈동자가 매우 강하게 도전이 되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K 선교사는 말했다. 선교지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곳이라는 것. 날마다 '내가 지느냐 이기느냐'부터 '그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사탄의 백성이 되느냐'를 두고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곳이라 했다. 성령으로 무장된 중보기도의 대군이 기도의 불화살을 그 땅과 선교사들을 향해 날려 줄 때 그 지원에 힘입어 그 땅은 반드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될 것을 선교사는 눈물로 선포했다.

우리 교회들은 이 시대를 분명히 보아야 하겠다. 철의 장막처럼 견고했던 이슬람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활력을 갖고 있는 시대다. 모르는 이들은 10년 전 아프가니스탄 순교 사건을 들먹이며 "안된다, 위험하다" 여전히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펴시고 계셨다. 최근 순교가 일어났던 땅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 세워졌다. 꺼진 것 같았으나 성령의 불꽃은 그 땅을 더욱 강력하게 태웠다. 이슬람권과 힌두교권, 불교권을 향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지금 펼쳐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교회는 선교에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되며, 이 시대에는 선교에 전념해야 한다. 잠자는 성도들의 사명을 깨워야 한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지상 대명령의 대상은 소수의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전 세대, 전 그리스도인이 선교 부흥의 불길을 태워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다.

###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 반드시 행복해야 합니다! 당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유사 이래 인류는 늘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헬라 철학의 거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한 철학적 주제가 행복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헬라 철학은 그들의 표현대로 삶의 기술(Art of living)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철학이란 행복한 삶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인류는 경제학, 의학, 심리학 등으로 끊임없이 행복을 연구했습니다. 행복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러나 행복을 이룬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행복한 호주 만들기 프로젝트(Making Australia Happy)'에 참가한 사람들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지난 2010년에 호주 ABC TV 전파를 타고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행복한 호주 만들기' 프로그램이 호주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로 호주는 OECD 국가들 중에 3년 연속 행복지수가 1위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주관한 전문가 그룹은 호주 시드니 지역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매릭빌(Marrickville)에 사는 여덟 사람들을 선정하였습니다. 문화적 배경, 직업, 연령, 결혼, 자녀 등의 조건이 다른 비교적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덟 사람들은 8주간 동안 계획된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이 계획된 활동들은 긍정 심리학에서 행복을 고양시키는 활동들로 검증된 것들이었습니다. 예컨대 친절 베푸기, 감사편지 쓰기, 용서 실천하기, 모르는 사람과 소통하기, 격한 감정 극복하기 등입니다.

이 프로젝트 전후에 여덟 명의 실험 대상자들은 뇌 스캔, 심리 검사, 타액 검사, 운동과 생활 방식 분석 등을 통한 총체적인 생리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의 결과는 한 마디로 대단했습니다. 심리적인 행복감은 말할 것도 없고 생리적으로 면역력, 수면 패턴, 체력개선 등에서 그야말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실험 대상자 8명이 8주 안에 굳어진 생활방식과 습관, 사고방식을 개

선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전에 대상자들 평균 행복도는 100점 만점에 48점(호주인 평균은 70점)이었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8주째 그들의 평균 행복도는 84점이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120만 명이었는데 이들도 모두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행복은 심리적, 생리적 검사를 통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남기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을 통한 긍정적 효과는 너무 큼니다. 행복의 긍정적 영향이 뇌와 혈류, 행동에까지 미쳐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 나아가 인생을 바꿔 놓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행복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흘러가는 감정도 아니요, 일부 운 좋은 사람들만 누리는 특별한 혜택도 아님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들이 갖고 싶은 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기술(Art of living)입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엔 행복을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 남가주장로협

#### 의술로 주님 사랑 전해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김용식 장로)가 지난 3월 31일(토) 한 국장로회총연합회와 함께 멕시코 티후아나, 바하 캘리포니아 등지로 의료선교를 다녀왔다.

이번 선교팀에는 한의사 4명을 포함해 총 16명이 참여했으며 이 지역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멕시코 의료 선교에 참여한 이들

## 오픈뱅크 나스닥 상장 "성공적" 평가

오픈뱅크가 나스닥에 상장됐다. 오픈뱅크는 200만 주를 발행했으며 공모가는 주당 11달러였는데 3월 28일 상장 하루 만에 12달러 20센트까지 급등했다. 오픈뱅크는 이번 나스닥 상장을 계기로 더욱 공격적인 태도로 시장을 공략하며 타주에도 지점을 확장할 예정이다.

오픈뱅크는 매년 수익의 10%를 오픈청지기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70만 달러 이상을 지역사회를 섬기는 비영리 단체에 지급했다.



3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민 김 행장이 나스닥 상장 소식을 전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자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사누 아르멜 (SANOU ARMEL)



## 힘모아 코끼리 다리를 고쳐 줍시다!

### 사누 아르멜(Sanou Armel)!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에 사는 17세 소년입니다. 5살부터 작은 흑으로 생긴 것이 커지면서 코끼리 다리가 되었습니다!

후원 문의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 에베소 교회의 진단과 경고

요한계시록 2:1-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요한계시록 2: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 또 네가 잡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 1.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가슴앓이

본문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중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영적으로 진찰하신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1장 18-20절에 보면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시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왕래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촛불을 밝히시고, 그곳에 사자를 세우셔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 받게 하십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는 목적으로 끊임없이 보살피시고 가꾸시며 잘못된 것을 지적, 책망하시고 때로는 칭찬으로 장려하시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진리를 성령으로 깨달아 믿어지게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한 구원과 영생

복락의 후사가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꺼이 목숨이라도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다짐했던, 성령충만의 첫 사랑을 변함없이 계속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장차 이 세상에 세워질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 2. 순전하고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디옥이었는데, 이곳은 바로 이방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곳입니다. 바로 이 세 지역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붙들여 쓰신 비중 있는 의미와 교훈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뜻은 ‘인내’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대단히 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회생과 은혜에 빛진 심령들로 구원 얻어 천국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목숨이라도 바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보면 칭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선한 행실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는 목적의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는 것이 선한 행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의 수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육신이 부담되고 손해 보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참고 견디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의 목적은 영적인 성과를 위한 수고였습니다. 이것은 본인뿐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천국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 얻을 수 있도록 구원 얻게 하는 수고가 하나님 맘에 드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칭찬하신 것은 악을 미워함으로 그 악한 사실을 드러내어 악한 자들을 교회에서 추방했다는 것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교회의 은혜 분위기를 해치고 목회자들을 비

방, 대적하며, 양떼들을 실족시킵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고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교리에 굳건히 서 있다고 했습니다. 교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말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교의신학(敎義神學)’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가 정통한 교회로서 굳건히 세워져 있어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소망을 위한 질서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 참으로 정통하고 온전한 교회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 없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떠나들며 기대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명분과 입지를 위한 또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난 잘못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책망하시며 권고하십니다.

## 3. 잃어버린 바 된 첫 사랑의 회복

먼저 서둘러 회개하라 하십니다. 육에 속한 생활에 잘못 변질되어 버린 신앙을 회개하고 영적인 가치 소망을

예수님께로 집중해서 다시 예수님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서두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절 15절에 “화 있을찢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가짜 신자가 전도를 해 오면 그 가짜 신자를 보고 교회를 다니다가는 배나 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만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있다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없애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들도 첫 사랑을 버리고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영적인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예수님과 첫 사랑을 회복해서 내세 소망을 목적으로 새 출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 되실 것이며,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 된 지체로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살리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훗날 이 세상이 다 불타 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질 때, 그곳에서 영생하는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GREENWICH**  
School of Theology  
Qua programma et propositum conveniunt  
Where program and purpose come together



## 이상 두 학교는 자매 학교로 PhD 학위는 North-West University에서 받는다.

PhD Degree in Theology at North-West University, SA, through Greenwich School of Theology, UK.  
(박사 학위 영국 인정 대학에서)

The Doctoral degree in Theology is achieved through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a thesis of 65,000 to 80,000 words on a religious/theological research area of the student's choice:  
(Dissertation Only-65,000-80,000 단어 논문)

Greenwich School of Theology is registered in the UK as a Private School (Number : 4575482) All Theology Degrees are conferred by North-West University, South Africa, an accredited institution in the UK by the Open and Distance Learning Quality Council.

**CONTACT: Dr. Hyo Shick Pai** Tutor Professor; drhyopai@gmail.com

T. 661-755-5442 배효식 교수 <영국에서 논문만 써가지고 PhD 학위를 받으시고 싶은 분만 연락 해 주세요> 논문은 영어로 쓰되 배효식 교수가 지도함.

# FABIEN FINANCIAL INC.

## 무담보 비즈니스 론 Fabien에 맡기시면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용자, 쉽고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 은행에서 비즈니스 용자를 거절당하셨습니까?

### 그러나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 No 크레딧 Bad 크레딧, 용자 문제 없습니다.
- ✓ 세금보고서가 없이도 용자가 가능합니다.
- ✓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누구나 용자 가능합니다.
- ✓ 비즈니스 매매 용자

# 10K~500K

까지

캐쉬 어드밴스

SBA 용자

상업용 부동산

하드머니 [플리핑 용자/Flipping Loan]

## www.FabienFinancial.com

금융 전문가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 T. 714.264.7288 | 844.380.9990

fabienfinancial@gmail.com

6131 Orangethorpe Ave #400 . Buena Park, CA 90620 (Center Park 빌딩 내)

Financial Freedom을 위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 Business Service

- 주식회사 설립
- 비즈니스 크레딧 Build Up
- 상업용자
- 비즈니스 매매 상담

### Real Estate Service

- 리스팅 전문
- Flipping House 투자상담
- Flipping House 용자상담
- Hard Money



Love Foundation  
LAW GROUP

## 러브파운데이션

LDA#315 / Bond 가입업체 / 714.227.7358  
6131 Orangethorpe Ave. #400 Buena Park, CA 90620 (Center Park 빌딩 내)  
Premier Services Realty DRE #01895705

Dr. David Oh  
법학박사 데이빗 오

- Azusa Pacific University 졸업
- Azusa Pacific University 석사
- Graduate School of Houston 박사
- Global Financial Service Certificate 수료



영적 각성 성장 대회를 준비 중인 애틀랜타한인목사회 임원들

### 애틀랜타목사회 영적 각성 대회 연다

#### LA한인침례교회 박성근 목사 초청

애틀랜타한인목사회(회장 류재원 목사) 주최 '애틀랜타 교민을 위한 영적 각성 성장 대회'가 4월 20일(금)-22일(주일)까지 스와니 소재 새생명교회(담임 조용수 목사)에서 열린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의 강사는 LA한인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성근 목사다. 박목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남침례신학교에서 철학 박사를 취득한 후, 1989년부터 LA한인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류재원 회장은 "힘들고 어려운 이민사회가 복음으로 하나되고 신앙으로 회복되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

길 바란다.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를 만나면 미래가 바뀌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애틀랜타 동포들뿐 아니라 우리 한인 2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최 측은 목회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모금과 형편이 어려운 목회자 돕기, 문서선교와 언론 선교 등 목사회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집회에 기독남성합창단, 새생명교회 성가대, 글로리아합창단 등이 특별찬양순서를 맡았고 4월 23일(월) 오전 11시에는 목회자 세미나도 열린다.

윤수영 기자



오레곤 밴쿠버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가 개최됐다.

### 오레곤 밴쿠버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

#### 강동, 강서, 밴쿠버, 유진 등 4곳에서 일제히

오레곤, 밴쿠버 지역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가 지난 1일 오전 6시 오레곤 지역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레곤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김대성 목사)에서 열렸다.

연합 예배는 김대성 목사(임마누엘장로교회)의 인도로 남공진 목사(시온장로교회)의 대표기도, 연합 성가대의 특송, 강재원 목사(은누리성결교회)의 말씀선포, 김신원 장로(임마누엘장로교회)의 헌금기도, 신종식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말씀을 전한 강재원 목사는 "부활을 믿

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복음을 전제적인 삶에 적용해야 한다. 예수 부활은 영생의 승리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오레곤, 밴쿠버 부활절 연합 예배는 강동 지역(임마누엘장로교회), 강서 지역(바이블선교회), 밴쿠버 지역(밴쿠버기독교교회), 유진 지역(유진중앙장로교회) 등 4곳으로 나누어 드러졌으며, 모아진 헌금은 교회 연합회를 위해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풀원 기자



PCUSA 복음주의연합 2018년 봄 정례회의에서 인사하는 주요 관계자들

### 복음주의연합 이문규 신임회장 선출

PCUSA 복음주의연합 2018년 봄 정례회의가 지난 11일(주일) 한빛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차기 회장으로 이문규 목사(한빛장로교회), 목사 부회장으로 김중현 목사(그리스장로교회), 장로 부회장으로 이효응 장로(연합장로교회)가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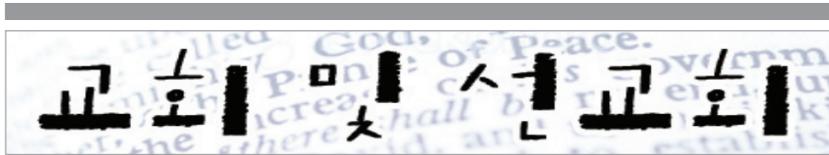
먼저 백성식 공천위원장이 그 동안 공천 과정을 거친 결과를 보고하며, 신임 회장 후보와 부회장 후보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동의, 재정을 거쳐 후보자 전원을 그대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회원들은 목회 활동 및 목회자 후보생 위원회 보고에 이어 지난 회계감사 보고, 2018 연간 사업 계획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윤수영 기자

이날 '예수님의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아리샤 브룩 리 목사님은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은 더 나은 길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 분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또 다른 사람들의 충고에도 지혜가 담겨 있으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브룩 리 목사님은 "우리는 가정, 학교, 교회 등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 분이 주시는 지혜로 평안을 누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침중학교 / 토요일-17와버몬트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가세를 위한, 이민가정을 지원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장태원**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1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 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 아침예배 오전 8: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향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예배 오후 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10:00-오후 1:00  
한여침남부 오후 1:30 2명이며 화 오전 11:00-오후 6:00

**서건우**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i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여침남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전야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목) 오후 1:00  
주일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890, (213) 620-7240 Email: lasehild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음-2차)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8시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매일연합예배) (스퀘어빌)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믿,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희인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초.진.초.정신의 흠뻑, 바른교회인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콜라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장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삶(말씀)과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f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주일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영아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금학교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무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보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장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공부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교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절문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현**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언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0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림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모임여 할라 갈(요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주일 1부 오전 8:00 중보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성경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절문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 한국 장신대 사경회 친북 발언 논란

## “북한 김정은 비방하는 남한 사람들 정상 아냐” 등

지난달 21일부터 23일 열린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임성빈) 2018 대학부 봄신앙사경회에 초청됐던 강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 “북한이 병들었다? 남한도 마찬가지”

먼저 주강사로 나선 김영식 목사(낮은예수마음교회 담임,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교인연대 운영위원)는 사경회 첫날인 21일 저녁예배 설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비방하고 무조건 조롱할 수 있나?”라며 “유엔이 인정한 국가의 한 지도자를 그렇게 예의없이 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남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상한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이어 “이것이 상사적인 국민, 정상적인 국가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단의 폐해다. 정상적으로 사고가 작동하지 않는다. 대결과 갈등, 반목과 질시로 어느새 우리 영혼이 멍들고 황폐해져가고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고 병들었다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엔 남한도 마찬가지”라며 “청소년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팽바다로 자기 몸을 던지고 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이웃의 아프고 눈물 흘리는 삶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 함께 울어주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발언을 하기에 앞서 “남과 북을 갈라놓으며 대결하게 만들었던 분단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념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매우 손쉽게 틀렸다고 말하고 적으로 규정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익숙해지게 만들었다”며 “상대방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갈등이 일상화된다.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하는 폭력적 관계가 구조화되었다”고도 했다.

### “한국전쟁 책임, 남북한 모두에게 남한, 북한 비판 자격 없다”

특강 강사로 참여했던 이동춘 목사(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겸임 교수, 비전교회 담임)는 21일 통일을 주제로 ‘우리, 하나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그는 “한반도 통일문제를 논할 때, 논쟁의 발화점이 되는 몇 개의 지점이 있는데 그 중 큰 것이 한국전쟁에 대한 책임소재”라며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남침했다는 한 자료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정한 수밖에 없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그러나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북한만이 원인이었을까? 북한이 6월 25일이라는 특정한 날에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미 소위 적화통일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었기에 전쟁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도 북진통일론을 공공연히 주장했다. 이를 미국과 UN을 통해 인정·승인받기 위해 다각의 수고를 하고 있었기에 전쟁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제공을 남북한 모두가 한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남북한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런데 전쟁 발발에 국한해서 전쟁 책임을 묻기보다 이러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한 더 깊은 연원을 추적한다면 대답은 또 다시 달라진다”며 “전쟁 패자인 일본은 한반도의 희생을 통해 살 길을 찾았는데, 미국과의 타협을 통해 한반도의 분단을 기뻐했던 것이다. 결국 한반도의 분단기획은 한국전쟁 발발의 진실이고 깊은 연원”이라고 했다.

북핵에 대해서는 “과연 북한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고 물으며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영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에도 핵무기가 있다면서 “그런데 왜 북한만 문제 삼는 것일까?”라고 했다.

이 목사는 “더욱이 폭력에 관한한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세계 곳곳의 분쟁·전쟁의 직접적 당사자가 되어 있다”며 “이것은 세계가 동의하지 않는 행위인데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자신들이 일으키는 분쟁·전쟁에 대해 정의롭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 과연 이 변명이 정당하다면 북한은 왜 정당하지 않은 것일까? 미국이 취하는 태도와 행동은 다 정의로운 것일까?”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가 한반도 통일문제를 말할 때, 또 하나의 논쟁 지점은 공산주의와 독재화에 대한 것”이라며 “더욱이 현재 3대 세습으로까지 이어지고 인권·빈곤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탈북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이러한 비판은 비판의 정당성 확보 문제가 제기된다. 너는 비판할 수 있을 만큼 선하나?는 것”이라며 “유감스럽게도 남한 역시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북한의 공산주의와 독재화를 비판하지만, 남한의 자본주의는 자본 독점과 분배의 부정의 등과 같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군부독재의 시절이 결코 짧지 않게 있었다는 것과 이후 민주화 시절에도 다양한 독재의 잔재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을 비판하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 총학생회 측 “편향되지 않았다”

사경회 강사들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편향했다,” “사경회에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견해”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사경회를 주관한 장신대 총학생회 측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분지와 의 통화에서 “(강사들의 강의 내용은) 편향되지 않았다. 전체적 맥락에서 그 강의를 파악해야 한다. 전체 강의 맥락에서 봤을 때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고 했다.

강사 섭외 과정에 대해서는 특강강사인 이동춘 목사는 총학생회가 직접 했고, 주강사였던 김영식 목사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연세대학교 세월호 참사 4주기

## 기억채플 갖는다

### 11일 연세대학교 원두우 신학관에서

연세대학교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4주기 ‘기억채플’을 4월 11일 정오 연세대학교 원두우 신학관에서 연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은 2016년도 9월에도 유가족과 시민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을 초대해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추모예배를 드리며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또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장 겸 연합신학대학원장 권수영 교수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해의 9월부터 지난 해 9월까지 3년간 안산시 힐링센터 0416 ‘쉼과함’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피해자와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인력과 재원을 지원해 왔다.

권수영 교수는 이번 기억채플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총체적인,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이 그 아픔을 기억하며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지속적인 지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추모예배도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억채플의 강사로는 세월호 사건 이후 출범한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세월호 사건의 사회적 책임과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연세대 토목공학과 76)가 초대됐다. 또한 유가족이 참석해 지난 4년간의 경험과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

한편, 연합신학대학원과 대학원 신학과 원우회는 오는 5월 18일에는 오후 5시부터 <416 합창단과 함께 하는 시대의 아픔을 기억하고 회복을 꿈꾸는 토크 콘서트>도 주최한다. 장소는 원두우 신학관 2층 채플실이다.

김신의 기자



출간기념회에 참석한 터키의 교단 대표자들 모습 ©터키성서공회

# 터키 주요 교단들 영어 교리서 발간 “기독교 역사에 기적과도 같은 일”

터키의 주요 교단들이 보충한 교리서가 영어로 출간되면서 에큐메니컬적인 발전이 이뤄졌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3일(현지시간) 월드와치모니터(World Watch Monitor, WWM)를 인용해 “터키 정교회, 가톨릭, 아르메니아 교회, 시리아 정교회, 개신교의 지지를 받은 교리서 ‘기독교: 근본적인 가르침’(Christianity: Fundamental Teachings)이 출간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각 교단의 대표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 책은 터키 교회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이 출판물을 승인하며, 이 책이 널리 읽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래 이 책은 2015년 터키성서공회에서 출간됐으나, 영어 버전은 지난 2월 3일 이스탄불에서 공식적으로 출간됐다.

당시 주 강연자로 나섰던 아르메니아 교회 사하크 마살란 주교는 “공동으로 이 교리책을 보증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았다”고 말했다.

이 책의 뒷면에는 “수 년 동안 서로를 의면하면서 깊은 분열의 유산을 남긴 교회들이 이 교리서에 공동으로 서명한 것은 기독교 일치에 있어서 작은 발걸음이다”라고 적혀 있다.

마살란 주교는 “당신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와 같은 교리서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책을 통해 ‘이 책에 담긴 근본적인 신앙의 원리와 교리를 인정하는 모든 교회와 신자들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후계자’라고 주저함없이 세상을 향해 힘있게 외쳤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서들랜드 스프링스 제일침례교회의 조감도 ©NAMB

# 서들랜드 스프링스 교회 재건 남침례회, 약 300만 달러 비용 지원키로

총격 사건으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텍사스 서들랜드 스프링스 제일침례교회가 올해 5월부터 재건을 시작한다. 작년 11월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지 6개월 만이다.

서들랜드 스프링스 교회의 프랭크 포메로이 목사는 27일 교회 재건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남침례회 북미선교이사회(NAMB)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최소 약 3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포메로이 목사는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다. 서들랜드 스프링스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특별히 구별돼 왔다.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 총격 사건의 영향을 받고 있다. 모든 가정들이 상처를 입고 슬픔을 겪었다. 이제 우리는 등대가 되

길 원한다. 가장 어둠이 깊은 곳까지 소망을 비추는 복음의 빛이 되길 원한다”고 전했다. 그는 “넘쳐나는 기도와 우리가 느낀 사랑으로 교회가 정말 은혜로웠다”고 전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주일예배 출석자는 2배 이상 늘었고, 세례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메로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26명의 순교자들과 생존자들의 피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돕는 손길도 다양하다. 건축 회사인 Myrick Gurosky & Associates(MG&A)는 이 건물의 설계를 맡았으며, 개발과 설계 작업에 들어가는 수십 만 달러의 비용을 컨설턴트들과 함께 기부하기로 했다.

강혜진 기자

# 영국성공회 ‘동물 세례’ 고려 중?

영국성공회가 1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동물 세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오는 6월 총회를 앞두고 일부 주교들이 제출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All of God’s Crea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주교회의 참석자들은 환경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와 동물의 감성과 의식에 대한 인식의 증가를 고려하여, 애완 동물을 위한 전례를 소개하는데 대한 의미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제임스 그레함 목사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질서를 포함한 모든 창조물의 회복에 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완 동물들에게 물을 뿌려주는 의식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비롯한 다른 애완동물들도 만물의 부활에 온전히 포함됨을 상징하는 전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동물 세례’로 묘사될 수 있는지 묻자 그레함 목사는 “일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과거 우리는 인간을 매우 특별하고 구분된 존재로 보았다. 오늘날 과학은 동정심이나 친절함 등 남자와 여자에만 한정되었다고 믿었던 많은 특징들이 다른 종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성품을 가진 창조물을 환영하는 분이고, 천국으로 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성공회 신자들은 이번 보고서가 ‘가장 미온적인 영국식’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9:3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서울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363-5887 Tel: (323) 837-09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gmail.com

## O.C. / 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0: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정오12:0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0: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2: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생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베델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생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장년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등교예) 장년부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FAMC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김한오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카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미루라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7시(수) 제자훈련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8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어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람을 일으켜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 남가주 베엘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찾습니다

- 1. 찬양 사역자
- 2. 유초등부 전도사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제출기한 : 2018년 3월 31일 까지

Email : info@bethelchurchsoca.org

교회 주소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이력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남가주베엘교회**  
BETHEL CHURCH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6~7살 1~2명 모집) 초보가능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6월 16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림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족치과 대표 오동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술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교일보, FH미션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 십자가의 상흔(傷痕)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중에 엄청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머리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까닭에 가시에 찢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을 박은 후에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나중에는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요19:34). 예수님은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서지고, 깨어졌습니다. 찢어지고 망가졌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그 모든 상처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보혈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까닭입니다. 피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습니다(히9:22). 상처가 없이는 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의 구속도 없습니다(엡1:7). 예수님의 상처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보혈의 샘이 열렸습니다. 상처는 열립니다. 예수님의 상처의 열린 틈과 찢어진 틈 사이로 보혈이 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아픔을 경험합니다. 상처는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상처 없이는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 상처 받는 것도 시작됩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만약에 상처 받는 것이 두렵다면 사랑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황폐해집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을 통해 부요케 됩니다. 사랑을 통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을 통해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상처를 무릅쓰고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몸에만 상처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을 받으시는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상처도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받으신 상처입니다. 상처를 받으신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처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상처는 치유되어야 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덧나면 큰일입니다. 치유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썩게 됩니다.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예수님

의 보혈로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상처를 치유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헨리 나우웬의 권면처럼 저주 아래 있는 상처를 십자가 아래로 옮겨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로 옮겨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상처는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면 상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찢히면 찢힐수록 향을 발하는 향나무처럼 향을 발하게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상처가 진주가 됩니다. 상처(Scar)가 영광(Star)이 됩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깨어짐을 통해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짐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는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상처는 부서짐입니다. 예수님의 부서짐으로 우리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부서짐은 아픔이지만 동시에 축복입니다. 우리의 부서짐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풍성한 축복에 이르게 됩니다. 앤 보스 캠프는 "우리의 모든 부서짐은 그리스도의 부서짐과 내어준의 신비와 만나 풍성한 기적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상흔(傷痕)은 예수님의 영광(榮光)입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가 상처를 치유합니다. 상처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영광이 됩니다. 부디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상흔을 몸에 지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갈6:17). 살롬.

## 당신은 어떤 교사가 되기 원하는가 (6)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수학이나 과학, 언어 같은 학문)이나 신앙적인 언어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과 같은 자연법칙들)도 존재한다. 패션이나 음악,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나 복잡다단한 사회 현상들도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다(창 1:31).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신앙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그분의 진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성경의 원리 원칙과 교훈, 법칙은 그것을 발견하고 따르고 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다. 그로부터 나온 관점 혹은 준거의 틀이 '성경적 세계관'이다.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만 사탄이 성령의 진리보다 더 높은 이론 및 사상으로 여겨지도록 바뀌 놓



제이슨 송 교장  
새연합초중고등학교

은 세상의 본질과 원리,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고 원래의 창조 의도에 합당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학교 교사와 일반학교의 크리스천 교사, 크리스천 홈스쿨러,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전문적이든 아니든, 유급이든 무급이든 상관없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나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에게 부여하신 책임이 무엇인지 잘 아는가? 나는 하나님과 내가 가르치는 이들 앞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봐야 한다. 가르치

는 자의 책임은, 학생의 성적을 올려서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거나 한 명이라도 더 머릿수를 늘려서 자신이 맡은 교육부서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가르치는 자들은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듯하다.

성적과 진학,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학업 성과 향상과 명문대 진학은 필자도 새연합초중고등학교에서 집중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하지만 그것이 가르치는 이유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책임져야 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이론을 무조건 대적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확실하고 신빙성 있는 하나님의 진리로 그것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도록 돕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인본주의에 기초한 모든 생각과 사상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 시키기 위해 가르치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위대한 과업이다.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 그 사랑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몇 년 전 미국의 텍사스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는 사는 스톤(Shannon Stone) 씨가 여섯 살 난 아들과 함께 텍사스 레인저스 게임을 보기 위해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직업상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스톤 씨는 그날 아들이 기뻐하는 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외야에서 홈런 공을 잡아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텍사스의 외야수인 조시 해밀턴 선수에게 미리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이닝이 끝나는 볼을 잡게 되면 자신에게 던져 달라고 말합니다. 해밀턴은 2회를 마무리하는 볼을 잡은 후 약속대로 스톤 부자가 있는 쪽으로 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펜스와 관중석 사이의 거리가 떨어져 공이 조금 모자라게 갔습니다. 스톤 씨는 아들을 위해 어떻게든 그 볼을 잡으려고 몸을 최대한 뻗었습니다만 난간 밑으로 추

어 안고 "아빠의 그 사랑을 잊지 말아라"고 속삭여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에게 최상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 없이 주고픈 것이 아버지 사랑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면 무엇이건 아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를 낳았습니다. 2천 년 전 갈보리 언덕에 뿌려진 십자가의 피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깊이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도? 아니 기억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간 도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맥스 루케이도 | 생명의말씀사 | 232쪽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 중 하나인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토대로,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는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길을 제시한다. 이는 평안을 위한 4단계 CALM(Celebrate, Ask, Leave, Meditate),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며, 선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날마다 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독서.



추천 도서

신학으로 사람을 보다, 죄를 통해 복음을 보다

“회개보다 더 큰 용서와 은혜는 없다”



신학살이 사람살이 최더함 크리스천투데이 | 194쪽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배움이고 학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선적으로 사람에게 있다. 그러므로 신학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이 있기에 신학도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학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관찰하는 것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신학살이 사람살이〉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창세기 1-11장을 기록된 '4가지 사건'을 통해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 창세기 1-11장의 '창조시대' 또는 '원역사시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먼저 창세기 3장 속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불순종의 죄', 창세기 4장 속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의 죄', 창세기 6장 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정욕의 죄', 마지막으로 창세기 11장 속 자신들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 '교만과 자기 영광의 죄' 등이다.

이렇듯 인간은 죄의 노예이며,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이다. 저자는 "이 시대에 기록된 주요 범죄의 목록들은 사실 모든 인간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범하는 죄의 실상이라는 점에서 큰 경종을 울려준다"고 말한다.

저자는 죄에 대해 "인간들이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의도하신 삶을 포기했거나 거절한 것을 뜻한다"며 "죄는 하나님의 특별한 금지명령에 대한 위반으로 시작

됐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전에도 죄는 사단의 타락으로 인해 천사들의 세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죄를 범한 인간 사이의 분리(사59:2)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상태는 오직 저주 아래 놓인 것일 뿐(사59:3-8, 롬3:10-18)이다. 우리가 이 책을 꺼내야 하는 이유는, 죄에 대해 제대로 알면 알수록, 역설적으로 '어떻게 하면 죄의 역사,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닌가.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죄와 싸우라! 죄를 거스르며 살라!'

저자는 마지막 '죄의 해결'에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인생을 산다. 성경은 이런 인간을 '죄인' 혹은 '악인'이라 부른다"며 "그러나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만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며 존귀한 교회이며 성도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 있고 은혜를 먹으며 산다. 이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공급된다"고 말한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첫째,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영적 은사들'을 수여하신다. 둘째, 말씀의 은혜 아래로 이끄신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양식이 됨을 알고 믿도록 역사하신다. 넷째, 한 사람의 감정도 영향을 끼쳐 그리스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달라지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성령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의 경향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여 취하고 행하게 되는 여러 죄들을 즉시 누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라. 회개보다 더 큰 용서와 은혜는 없다. 만약 이 참회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성도라 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이며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책에서는 여러 가지 죄를 살피면서, 개혁신학 관점에서 인간 실존과 죄의 본질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죄론'이 아니라, 사람에게 대한 '이해'가 있고, 죄의 해결책과 함께 죄를 극복하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필요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대용 기자

열방을 향해 가라

존 파이퍼 | 김대영 역 | 좋은씨앗 | 456쪽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단순한 통계보다 더 큰 동기를 부여받고 싶어하는 평신도들을 위해 쓰였다. 그리고 선교학에 대해 인류학과 방법론을 넘어 신학적으로 접근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초점을 맞추고, 꺼져 가는 소명의 빛을 다시 힘차게 발하고자 하는 리더들에게 적합하다. 21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주의자이자 목회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의 저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바실레아 솔링크 | 배웅준 역 | 규장 | 280쪽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기록했다. 독신 여성수도회 기독교마리아자매회의 공동 창설자인 저자의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겼다.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신뢰하고 순종할 것을 권면한다. 저자는 함부르크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평생 100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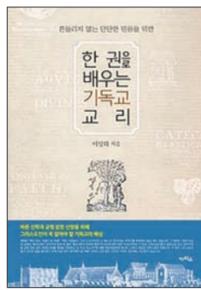


신학이 어려운 성도에게... 「한 권으로 배우는 기독교 교리」

기독교인이 꼭 알아야 할 신학 핵심을 한 권으로 정리한 <한 권으로 배우는 기독교 교리>(카리스)가 출간됐다.

사실 일반 성도는 조직신학이나 교리라는 말만 들어도 어렵다. 하지만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신학과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하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신학의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했다. 출판사는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신앙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 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꼭 읽어야 할 교과서"라고 했다. 북북



한 권으로 배우는 기독교 교리 이상화 카리스 | 296쪽

에 소그룹이나 구역모임을 위한 스터디 가이드도 첨부돼 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체계적으로 교리를 배운 경험이 드물다. 교리는 곧 기독교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인데,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추구해야 할 가치관과 같은 것이 교리를 통한 바른 신학과 균형 잡힌 신앙이지만 이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탓에 삶 가운데 체계

적인 신앙관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것이다. 이 책은 기독교인들이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한다.

무엇보다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일관성 있고 통전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쉽게 정리했으며, 조직신학의 핵심을 한 권으로 엮어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신학)과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균형 잡힌 삶의 체계(신앙)를 배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책은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즉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 신앙의 내용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성경 지식을 정리하는 것이다.

종교의 기원부터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기독교인이라면 잘 믿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교리를 담고 있다. 김진영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줄주림 보다 더 큰 목마름**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오바마 케어 벌금면제**

~성경적이며 저렴한 의료비 해결책이 있습니다~

# “크리스천 헬스케어”

**CHM의 특징:**

- 미주 최초, 최대의 의료협동조합입니다.
- 일반 건강보험보다 60%이상 저렴합니다 월(\$45-\$150/인).
- 지병/신분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의사/병원을 선택하고, 한국의 병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훌륭한 임신/출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료비 혜택 후 할증되지 않습니다.

**CHM이란...**  
CHM은 오바마케어 벌금이 면제된 의료비용 나눔사역을 바탕으로 세워진 비영리단체로서 미주 최초로 최대의 의료협동조합입니다.

**\*CHM 한인지원센터 714.738.1234**  
(교회, 사역자, 회사등 그룹가입 문의는 Ext.404를 눌러주세요)

251 E. Imperial Hwy. #410, Fullerton, CA 92835 / [www.chman.org](http://www.chman.org)

-골드회원이신 분들은 새로 바뀐 가이드라인에 의해 본인 부담금이 종전에 있었던 \$500 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므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2017년 세금보고시 필요한 8965form 안내를 해 드리니 한인지원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실버나 브론즈 회원들도 응급실 사용이 지원됩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습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있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자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프로지골드의 특별한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 (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제1회 국제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에서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정보건연구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F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제12처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바위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68)

# 주님께서 가신 비아 돌로로사의 14처 (3)

### 제10처 십자가가 내려진 곳

제10처는 막14:24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던 곳이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바로 오른쪽 'Chapel of the Franks'라는 곳인데, 막혀 있어서 창을 통하여 볼 수 있다. 지금은 제10처를 좀 더 안쪽으로 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곳 벽에는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습이 벽화로 그려져 있다.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런 말도 없이 어린양이 되어 끌려 오신 모습을 연상케 한다.(요19:23-24)

의 모습이 모자이크 벽으로 장식되어 있다.

### 제12처 십자가가 세워진 정중앙

제12처는 그리스 정교회 소유로 매우 어지러운 치장을 해 놓아서 개신교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장소가 되었다. 예수님과 사도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의 은으로 만든 성상이 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다시 삶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계단 아래로 내려가 보자. 직사각형의 돌이 놓여있고 사람들이 이곳에 무릎을 꿇고 키스하는 모습을 본다.

천주교회와 정교회 사람들은 이 장소도 신성한 곳으로 여겨 이곳에 물건을 대어 놓거나 비비면 복이 임한다 생각하여 여러 물건들을 그곳에 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또한 현세적인 복을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서병길 목사 전 GMS 파송 이스라엘 선교사 풀러신학교 선교목회학 박사

불과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가려고 길게 무리지어 서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곳에 자기 무덤을 준비하였으나 예수님께 드렸다.(눅 23:53, 요19:40-41)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시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다시 골고다 언덕은 적막하여졌고 간간히 아직도 아쉬움에 돌아가지 못한 여인들의 흐느낌이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다. 안식 후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가 천사를 만났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온 인류가 들어야 될 최대의 굿뉴스가 선포된 것이다.

라 한다.(마28:2-3) 두 번째 방이 예수님 무덤인데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길이는 가로 2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정도 된다. 무덤은 단지 부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무덤교회의 핵심은 부활이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인류는 모두가 죄 값으로 무덤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무덤을 이기고 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중요하므로 무덤교회에서는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면 된다. 오늘날 무덤은 변형되어 옛날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옛 모습을 보기 원한다면 무덤 장소 뒤편에 있는 시리아 정교회 무덤으로 가보라. 예수님 당시의 전형적인 돌무덤이 있다. 전승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야고보가 이 무덤에 들어갔다고 한다. 현재 이 교회는 6개 교단(그리스 정교회, 로마 천주교, 시리아 정교회, 콥틱 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계속)

### 제11처 골고다 언덕 못 박히신 곳

'해골의 곳'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이다. 이곳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곳의 벽화가 못 박히시는 모습을 밝히 알려주고 있다.(눅23:33) 예수께서 못 박히시는 장면을 지켜보는 슬픈 표정의 여인

### 제13처 입관석 혹은 신묘의 원석

바로 이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바위(Stone of Anointing)가 보인다. 입관석, 성별의 돌, 신묘의 원석이라 불린다. 운명하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내려서 세마포로 싼 다음 유대 법에 의해 무덤에 들어갈 준비를 한 곳이다.

### 제14처 예수님 무덤교회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이곳은 슬픔의 길의 맨 마지막에 있다. 빈 무덤은 흠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원래 바위산인 골고다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주위를 바위를 깎아버려서 지금은 커다란 원형의 모형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신묘의 원석에서



제14처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하는 교회 내부 모습들



##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 신입생, 편입생 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척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합, (진리의길)

알, (학문의 길)

살, (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하나님의 치료와 믿음의 승리

# 치유회복

HEALING & RECOVERY

수요치유예배

너희가 내 안에 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나눔과 섬김의 교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276 S. Rampart Blvd.L.A, CA 90057  
Tel: 213-272-6031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L.A, CA 90057

#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주파수 맞추는 기도

## 〈기도의 사람〉 펴낸 부산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

“기도는 삶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기도는 지금 여기, 우리의 가장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써 내려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커리어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아갔던 것은 경력입니다. 기도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어느 한 순간 기도해서 깊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은 오래 그리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미국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ANC온누리교회)를 마무리하고 2016년 부산 호산나교회에 부임한 유진소 목사가 수요예배 설교를 모아 〈기도의 사람〉을 펴냈다. 구약의 아벨부터 다윗까지, 17인의 신앙을 ‘기도’라는 렌즈로, “그들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함께 고민하며 바라본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유 목사가 뽑은 17인은 아브라함, 요셉, 모세처럼 친숙한 이들도 있지만 엘리엘, 드보라, 엘리처럼 기도는 키워드로 볼 때 고개를 가웃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삶에서 뽑아낸 23가지 이야기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다음은 유진소 목사의 이야기.

**-기도에 대한 책은 참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도를 책으로 배운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고전적인 주제이자 모든 신앙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책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신선하게 우리를 깨우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부임하자마자 수요예배 때 ‘기도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성경 인물들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기도를 책으로 배우기 쉽지 않다는 말은, 기도 자체를 배우기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영적 사건이자 역사여서 정해진 룰이나 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하죠. 그런 면에서 기도의 세계는 너무 방대합니다. 기도란, 한 실존이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다양한 것처럼,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 공

부하고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책이 필요합니다. 모르겠다고 던져 버리면, 중요한 기도를 도울 수 없습니다. 기도는 다양하게 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책을 썼습니다.

**-설교를 기초로 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기도책들과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기도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는 쪽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물론 영적 원리야 있겠지만, 기도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실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도에 대해 스케치를 좀 더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저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특별하고 객관적인 특징들을 하나씩 톡톡 던지는 형태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도 ‘기도’라는 영어로 성경 인물들을 정리해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기본적 전제는 성경의 사람들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신앙의 본보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면 실패한 대로 본보기가 되지요. 그들이 신앙의 사람이라면, 각자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을 풀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도’라는 카테고리에 정확히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기도일까? 기도라고 풀어내도 될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기도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각 사람의 스토리가 하나의 다양한 기도의 이론이 되고 메시지가 됐습니다. 아담은 아주 외로울 때 빈 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야곱의 삶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외로울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즐거운 성경 66권 탐구〉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대기적이 아닌 통시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인물 탐구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유진소 목사는 기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풀어놓았다.

때 했던 인물 탐구라는 앵글을 갖고 이번 책을 썼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실존적 삶의 자리에서는 내면적인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도, 그리고 기도의 다양한 원리 등을 책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아벨이나 엘리엘, 드보라나 엘리 등 기도와 관련해 주목받지 않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성경 인물들을 꼬집어 내셨는데요.**

그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묶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에서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뽑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성경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벨 이야기도 짧지만, 그 사람의 삶의 자리와 실존, 그리고 마음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말씀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신앙적 고민이나 상황들을 보니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나타난 건 작지만, 다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한 인물들보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듯한 인물들 이야기를 쓰면서 개인적으로는 훨씬 좋았습니다. 그것이 절대 부족하지 않았습니. 왜냐하면, 그들의 전기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폿 뉴스(spot news)처럼 그들 삶 속 한 지점에서 있었던 기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할 리 없었습니다. 또 팩트뿐 아니라 그 팩트 나오게 된 내면을 살펴보고 기

도로 연결시키니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책 속 구약 인물들의 기도에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직접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와 다르다고 보는 것 자체가, 그동안 그 인물들을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소통했지만, 영적으로 어떤 경지에 들어가서 한 것일까요? 저는 지금 우리 내면과 생각, 의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탈신화’가 아니라 ‘탈영적화’를 시킨다고 할까요 (웃음).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면과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바꿔주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안에서 직접적인 소통의 부분을 너무 많이 막아놓았던 부분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들었다면,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맞춰 가니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신비주의적이나 비현실적 접근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 일을 알려주시기도 한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을 추구해선 안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을 흑백논리나 객관적

으로 딱 정리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겠지만, 신앙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균형이 맞으면 정답이지만, 균형을 잃으면 잘못된 것이 되죠. 균형을 잃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원리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틀리지 않지만 균형이 다소 맞지 않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물음이 올 때마다 결론을 내지 않고, 이걸 이래서 좋지만 저런 저래서 나쁘다고 양쪽을 모두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머지는 성도들과 독자들이 기도하면서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신비적인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들어갈 수 있지만, 잘못 하면 신비주의자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다 포기하지 말고, 당신만의 균형을 잡아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능력 밖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기도’를 강조하셨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답은 나 자신이 주파수를 계속 돌려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파수란 나를 계속 부인하는 작업들이겠지요. 거기에는 단지 내 자

#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8,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박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신에 대한 자기부정뿐 아니라, 더 많은 경우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갖고 있는 나름의 구조 같은 것들을 내려놓는 데서 오는 두려움도 감당하겠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기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해야 하고,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쌍방의 소통이라면, 내 이야기만 하고 끝내선 안 되겠지요. 더 많이 들어야 하는데, 들으려면 내 주파수를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주파수 바꾸는 작업을 잘 못하십니다. 이렇게 바뀌어 뭔가 느낌이 왔는데도, 여전히 내 편견과 관점, 나만의 안전 지대나 편안한 구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닐거야'라고 하다 보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참 많은 경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필립 안시의 표현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뜻밖의 장소에서 만납니다.' 늘 쓰던 주파수가 아니라 다른 주파수로 갔을 때 비로소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긴가민가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기본적인 신뢰를 갖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진짜 들은 것 같았을 때도 '아니면 어찌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음성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나 깨닫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이라는 잣대로 분명히 그 음성을 재 봐야 하겠지요. 저는 성경 안에서 분명히 가능한 것이 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컨펌(confirm)'하실 때까지 그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가 깜깜할 때 거실로 나가서 어떻게 불을 켤지? 이 방향 같으면 계속 손을 내밀고 앞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벽이

손에 닿으면 아니다 하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지요. 우리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분명 스위치는 어딘가에 있으니까요. 느낌이 왔다면, 일단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아니구나' 하고 돌아지면 됩니다.

**-기도는 커리어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커리어'라는 말 자체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이야기, 그 삶을 세워주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기도는 그 자체가 한 건마다 요청해서 받아먹고 응답받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내 인생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영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함께 여러 번 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일이 다 지나갔다 해도, 그 모든 것이 대통령과 제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말해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야기는 없애지는 게 아니라, 영적 커리어를 형성합니다. 제가 본 기도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호산나교회 목회 2년째인데, 이민 교회 경험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궁금합니다.**

목회 자체는 똑같습니다. 둘 다 한국인들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건 미국 이민교회는 처음부터 제가 개척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과 관계가 형성돼 있는데, 이곳은 이미 있는 관

계 속에 끼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담임목회를 해야 하는, 오랜 관계와 익숙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산나교회가 워낙 건강하고 튼튼한 곳이라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고 싶진 않으셨는지요.**

저는 여기가 참 좋습니다. 일단 부산에서도 서쪽 끝이어서 다른 큰 교회들에 비해 마음도 재정도 겸손한 지역입니다(웃음). 막 개발되는 지역이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쁘기도 합니다. 교회가 말아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좋은 곳을 맡겨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계속 고민하는 것은 이 지역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이즈는 충분하기에,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진짜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미국 목회에서도 제 주제는 '진짜 교회'였습니다.

**-이 책으로 '기도를 배울' 독자들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책을 쓰면서 늘 마음에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신앙인으로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그 사실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 줄도 알고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필요할 때 기도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특권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열등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라는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기도의 사람'이라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을 읽으시고, 자신만의 '기도의 사람' 이야기를 각자 잘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용 기자



한국기독교철학회 2018년 춘계 학술대회가 열렸다.

## 성경과 모순되지 않는 과학 가능 기독교철학회 '인공지능과 기독교' 학술대회

'인공지능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한국기독교철학회 2018년 춘계 학술대회가 지난 3월 24일 서울 방배동 백석대 목양동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근수 교수(서울대)가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했고, 김유신 교수(부산대)가 '인공지능의 형이상학: 기독교적 관점에서', 손화철 교수(한동대)가 '포스트휴먼 시대의 기독교와 기술'을 각각 발표했다.

김유신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는 기독교 철학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의 성공은 물리주의, 특히 환원적 물리주의의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뇌도 물질의 복합체이고 그 작동이 물리적 작동이기에 뇌를 스캔해서 모방한다면 의식이 나오지 않을지 물을 수 있고, 인공지능도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물리 과학이 세계를 파악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과학은 여전히 세계를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과학이 이상적으로 발전하더라도 세계를 다 파악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세계는 과학 이전에 생겼고, 과학은 명백히 우리 사고의 산물이며 우리 사고는 세계가 존재하고 난 후 생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신 교수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과학은 이렇듯 우연의 산물"이라며, "오늘날과 다른 형태의 과학도 가능해질 것이다. 앨빈 플란팅가는 이를 '어거스틴 과학'이라 불렀다"며 "다시 말해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 개념, 신의 존재, 영혼의 문제 등과 모순되지 않는 형태의 과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의 신앙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경적 설명과 조화되는 과학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과학을 두려워하고 성

령을 감성이나 감각 혹은 무속의 영역으로 쉽게 제한시키려 한다"며 "그러나 오히려 지성적 상상력을 확대하여, 성경과 영을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본다면, 기독교 신앙의 폭을 넓히고 물리주의와 유물론을 전체 세계 이해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 쉬우며 기독교 세계관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손화철 교수는 "포스트휴먼의 가능성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할 접근 방식은 '미래의 포스트휴먼'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아니라, 현대 기술의 현재 문제에 개입해 들어가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술 개발에 있어 단순 부작용이나 오용을 막으면 된다는 식의 간단한 접근이 아니라, 기술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직간접적 결과들을 숙고하고, 포스트휴먼으로 생겨날 다양한 상황 중 기독교적 입장에서 추구할 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려는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인공수정에 찬성하면서 배아의 유전자 치료에 반대할 수 있는지, 유전자 치료와 인간 향상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장기 이식은 권장하면서 인공장기는 거부할 것인지 등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내린 후에도, 그러한 기술들이 활용되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할지 그리고 어떠해야 하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기독교는 개발되는 기술들에 '왜?'를 묻고 답해야 한다. 격심한 경쟁과 혁신을 추구하면서 복지관찰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기술사회의 흐름에, '왜 그 기술이 필요한지, 그 기술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물어야 한다"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기술의 발전 자체에 대해 묻기보다 그 발전이 초래할 수도 있는 부작용을 막는 데 주력하지만 정작 그 기술이 왜 개발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는데, 이러한 접근 역시 기독교가 유의미하게 세상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대용 기자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칼라 칼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컬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컬러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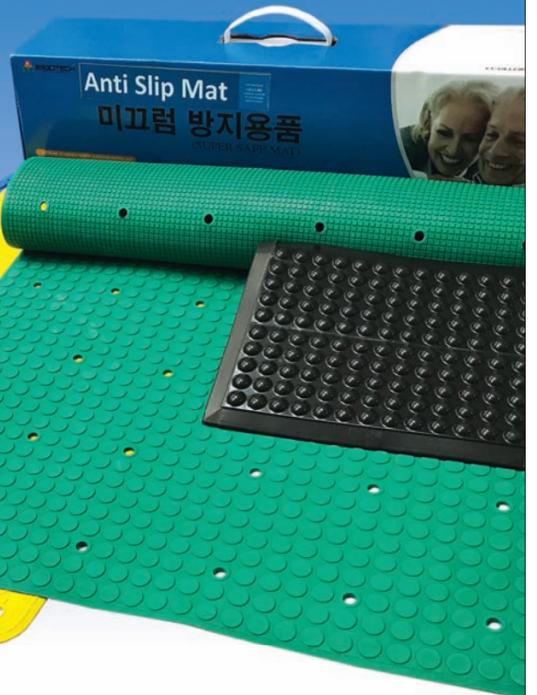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 피로야 가라! 피로방지매트 (Prevent Fatigue Mat)

인체공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피로방지 매트(Prevent Fatigue Mat)로서 일하는 곳 바닥에 탄력적인 표면을 제공하여 서서 일하는 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현저하게 예방하고 피로로 인한 만성질환에서 벗어나게 해 드립니다.

70%이상 피로 감소, 피로방지, 혈액순환, 하지정맥류 개선, 작업안전 증대, 미끄럼 방지, 충격흡수, 생산성증대, 노동자 보호, 관절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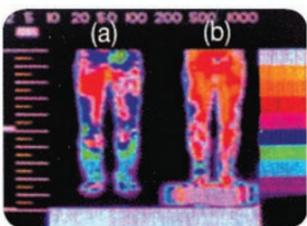
**목사님!**  
목회자  
특별한인 혜택  
편안하게 피로방지매트에서  
설교하세요!!!

- 서서 설교하실 때 충격흡수를 시켜 관절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피로를 줄여드립니다.
- 바닥에 앉아 기도하실 때 **기도매트**로 좋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미끄러지지 마세요!!!

- 미끄럼에 의한 골절과 상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다 아시죠?
- 미끄럼방지 매트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 침대 옆, 화장실, 주방, 거실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열탕상선을 이용한 피로방지 매트 비교실험 (혈액 순환 정도와 근육 피로도를 비교한 그림)**

- (a) 피로방지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바닥의 경우  
청색과 녹색이 종아리에 몰려 분포되어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현재 근로자가 원활하지 않은 근육활동과 혈액순환으로 피로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b) 피로방지 매트를 설치 한 경우  
붉고 노란색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피로방지 매트의 독특한 인체공학적 설계의 탄력적 특성과 재질로 인하여 근육 및 혈액의 순환이 원활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 ■ 미국판매기념 특별세일

<p><b>E- MAT</b></p> <p><b>피로방지용</b> 사이즈 3ft + 2ft <del>\$123</del> <b>\$176</b> +tax <b>30% Off</b></p> <p>* 사이즈와 모양을 설치 장소에 맞게 만들어 드립니다.</p>	<p><b>SAFE KOREA MAT</b></p> <p>사이즈 80cm+40cm <del>\$75</del> <b>\$60</b> +tax</p>	<p><b>NEW SUPER SAFE MAT</b></p> <p>사이즈 92cm+42cm <del>\$90</del> <b>\$72</b> +tax</p>
	<p><b>SAFE MAT</b></p> <p>사이즈 80cm+40cm <del>\$95</del> <b>\$76</b> +tax</p>	<p><b>SUPER SAFE MAT</b></p> <p>사이즈 3ft + 2ft <del>\$145</del> <b>\$116</b> +tax</p>

약국, 식당 주방, 가정집, 일반 소매점, 웨얼하우스, 메뉴팩처, 디자인 하우스 등 서서 일하는 모든 사업장 자동차 공장 등 산업시설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 피로방지 매트(Prevent Fatigue Mat) 설치



구입 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